본 소식지는 한우자조금으로 제작되어 한우농가들에게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우자조금소식지

# 한우자조금

www.hanwooboard.or.kr

2015년 10월호

**포커스**

한 · 중 FTA, 한우고기 수출 기회 될까?

**한우자조금소식**

추석맞이, 한우직거래장터 청계광장서 열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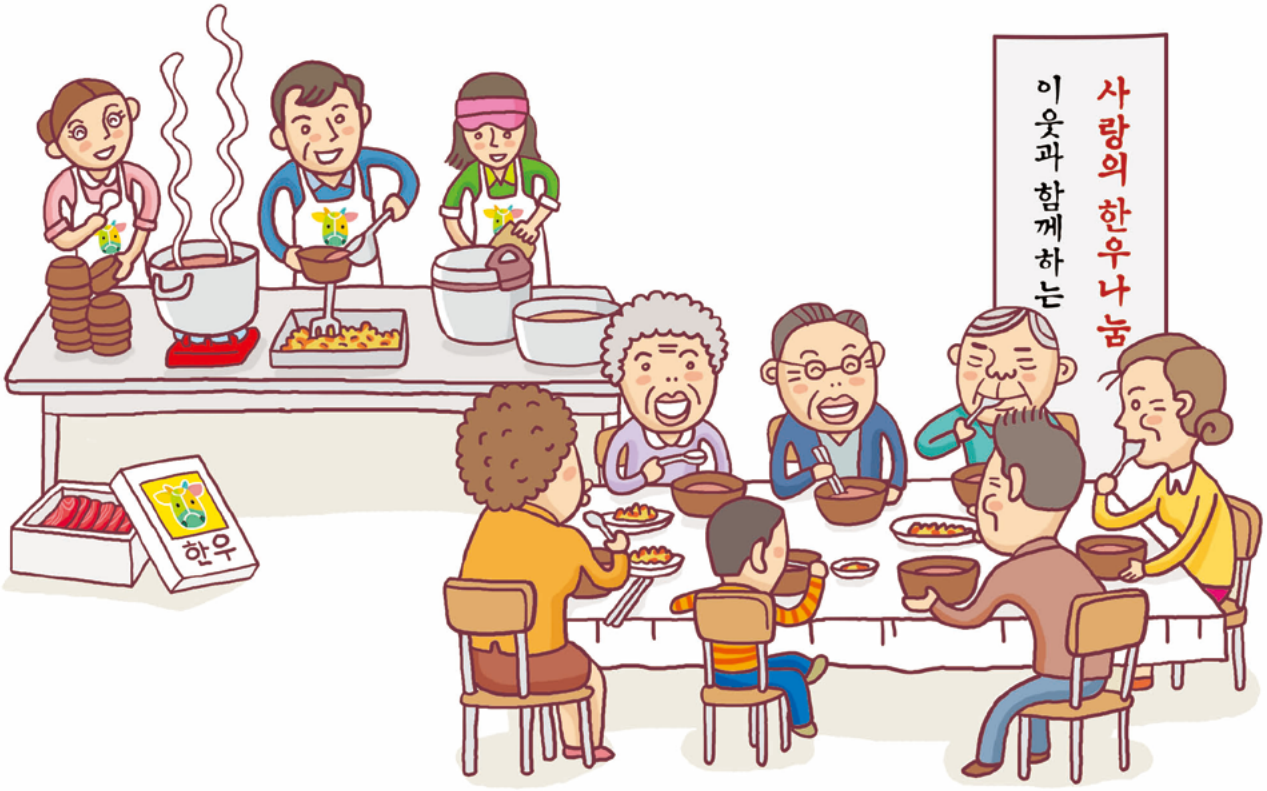
어린이 대상 한우알림순회공연 진행

**목장탐방**

경북 문경 백상농장

**우리한우판매점 탐방_경상북도편**

포항 만포한우갈비



# 목 차CONTENTS

## 2015년 10월호













### 포커스


03 한·중 FTA, 한우고기 수출 기회 될까?


### 한우자조금 소식


07 추석맞이 한우직거래장터 청계광장서 열려
08 어린이 대상 한우알림순회공연 진행
09 '포천 한우축제', '충북한우사랑 축제' 등 개최
10 한국국제축산박람회장서 한우 홍보 활동 전개
11 방송PPL-추석 명절에는 한우가 최고!


### 한우협회소식


14 전국한우인대회 및 16주년 전국한우협회 창립기념식
15 한우 원산지위반 손해배상 청구 위임서 보내주세요!


### 정보마당


12 **한우시황**_10월 한우 관측
16 **농장탐방**_경북 문경 백상농장
18 **우리한우판매점 탐방(경상북도편)**_포항 만포한우갈비
20 **뉴스클리핑**_이달의 이슈
22 10월 자조금 주요행사 일정


### 독자마당


23 **애독자퀴즈**

# 한·중 FTA, 한우고기 수출 기회 될까?

다음 달부터 국회에서 한 · 중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쇠고기의 경우 다행히 민감품목으로 분류되었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호주, 미국, 캐나다와 FTA를 체결한 바 있고 뉴질랜드와의 FTA 역시 비준만 남겨놓고 있는 상태라 사실상 15년 이내에 수입 쇠고기 무관세 시대에 접어들게 된다. 하지만 최근 홍콩 및 할랄 시장 등 쇠고기 수출이 상당부문 진척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한 · 중 FTA를 계기로 중국 시장까지 문을 두드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한 · 중 FTA가 한우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자.

## 한 · 중 FTA 협상서 쇠고기는 관세 40% 유지




한·중 FTA는 2012년 5월 협상을 개시한 이후 작년 11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에서 실질적인 타결이 선언됐으며, 올해 6월 1일 양국 통상장관 간 정식서명이 이뤄졌다. 현재 농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고, 피해보전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10월 중 구성키로 하는 등 FTA 비준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분위기다.

한·중 FTA 협상내용을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쇠고기는 모두 양허제외 품목으로 분류돼 신선냉장 및 냉동 쇠고기는 관세 40%, 식용설육(족 · 꼬리 · 혀 등)은 18%의 관세를 유지하게 된다. 반면 중국은 냉동 쇠고기의 경우 10년 이내, 냉장 쇠고기의 경우 15년 이내에 18~25%인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기 발효 중인 미국, 호주, 캐나다와의 FTA가 15년 관세유예를 조건으로 체결된 것에 반해 한·중 FTA에서는 우리나라가 양허를 지켜낸 점, 그리고 위생·검역 협상에서 업계가 우려했던 '지역화 개념' 조항 등을 제외한 점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 반응이나 한·중 FTA가 한우산업에 궁극적으로 도움이 될 것인가 위기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시각차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 품 목 | 한·중 FTA | 한·미 FTA | 한·EU FTA | 한·호 FTA | 한·캐 FTA |
|---|---|---|---|---|---|
| 신선냉장 · 냉동(40%) | 양허제외 | 15년+ASG | 15년+ASG | 15년+ASG | 15년+ASG, 양허제외 |
| 식용설육(18%) | 양허제외 | 15년 | 15년 | 15년 | 11년 |

## 한 · 중 FTA, 한우산업에 위기일까 기회일까?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서 중국산 쇠고기의 한국 수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니다. 비관세장벽으로 불리는 검역문제가 해결되면 기본세율과 실행세율 40%로 중국산 쇠고기가 국내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한·중 FTA가 한우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한 이병오 강원대 교수는 "2012년 중국의 두당 평균 사육비는 116만 원으로 비육우 kg당 생산비가 우리나라보다 4배가량(농경연 2010년 기준) 저렴한 데다, 중국 동북3성에는 대형 육우 패커가 많아 중국산 쇠고기가 수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이 자국의 수급량과 상관없이 쿠웨이트와 요르단, 레바논 등에 쇠고기를 수출해 왔고, 동북지역 수출전진기지 육성정책과 기업농장의 고급육 생산잠재력 등을 감안했을 때 중국이 한국 수출전략을 펼 경우 언제든지 위협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한·중 FTA가 발효되더라도 당장 중국산 쇠고기가 한우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견해다. 일단 중국 내 쇠고기 자급량이 부족하고, 중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더라도 선진화된 생산시스템이 아직 갖춰져 있지 않은 데다, 중국 내에서도 쇠고기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국제 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또한 중국 육우정책 자체가 중상등급 육질을 지향하면서 육량을 최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육질 측면에서는 한국 시장에서 메리트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 홍콩 시장을 교두보로 중국 대륙 수출을 준비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최근 홍콩과 말레이시아(할랄) 수출에 전 기관과 업계가 전방위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상당부분 진전이 된 만큼 한우 수출에 대한 자신감이 고조돼 있는 상태다. 이병오 강원대 교수는 "중국의 관문이자 전 세계의 쇠고기가 모이는 홍콩시장에 진출해 고급육을 수출하면서 향후 홍콩을 수출전진기지로 중국을 공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홍콩의 경우 마블링 소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일본 화우에 비해 한우가 가격경쟁력이 있는 데다, 한류 영향까지 더해져 한국산 쇠고기에 대한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형성돼 있다고 알려져 있다. 횡성한우 관계자는 "홍콩식품박람회에 참가했을 때 바이어들의

### 중국의 쇠고기 수입국과 수입액

(단위:천 달러,%)

| 국명 | 2013년 | | 2014년 | |
|---|---|---|---|---|
| | 수입액 | 증감률 | 수입액 | 증감률 |
| 호주 | 657,633 | 454.7 | 572,771 | -0.1 |
| 우루과이 | 267,700 | 441.9 | 285,458 | 17.8 |
| 뉴질랜드 | 152,814 | 486.6 | 182,511 | 23.9 |
| 아르헨티나 | 42,616 | 4,498.1 | 74,915 | 117.8 |
| 캐나다 | 80,217 | 627.1 | 56,474 | -21.6 |
| 코스타리카 | 854 | 0.0 | 7,235 | 4,681.5 |
| 한국 | 3,740 | 585.4 | 10,849 | 190.1 |

주: 한국은 HS Code 020220(뼈째로 절단한 냉동 쇠고기), 020230(뼈 없는 냉동 쇠고기) 기준
HS Code 0202(냉동한것에 한한다)
자료: 한국무역협회

관심이 높았고 한류로 인해 한국산 상표 그대로 수입되길 원하며 일본산 쇠고기를 불신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검역원 관계자도 "현재 한국 홍콩간 쇠고기 수출입 위생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미 국내 10여개 업체가 홍콩 수출을 위해 검역시행장 현지심사 신청을 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강원도 횡성군은 지난 8월 중국 윈난성과 한우 수출을 위한 업무협의를 하는 등 중화권 시장 진출의 문을 적극 두드리고 있고, 지난 5월에는 산동성 관계자들이 쇠고기 구매협의차 전북 광역한우브랜드 참예우를 방문하기도 했다.

사실 올해 최대의 이슈는 말레이시아를 통한 할랄 제품 수출이었는데, 말레이시아 수출이 성사될 경우 전 세계 54개국 이슬람 문화권에 한우고기가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수출 경험이 축적되면 중국시장에 한우고기 수출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 중국 시장 속 우리 한우의 경쟁력은?

우리나라가 중국을 유망한 수출시장으로 바라보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급격히 늘어나는 중국 내 쇠고기 수요에 비해 공급량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중국의 1인당 평균 쇠고기 소비량은 2009년 2.4kg 이었지만 현재 4~5kg 수준으로 높아졌으며 향후 5년 안에 8kg가량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연변대학 농학원 엄창국 교수는 한 심포지엄에서 지난 13년간 중국의 쇠고기 수입량이 45배 증가했으며 2020년



에는 717만 톤의 쇠고기 부족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의 경우 요리 재료로 쇠고기를 사용하거나 육포, 꼬치, 훠궈(중국식 샤브샤브) 형태로 쇠고기를 소비하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식 고기구이가 유행하고 있다는 점도 청신호로 보인다. 아울러 도시의 젊은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마블링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소비패턴이 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대형 브랜드 설룡흑우(호주산 와규와 중국 황우의 교잡종)와 같이 마블링이 좋은 고급육의 경우에는 한우 가격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인들의 한우고기에 대한 선호도는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상위층 관광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잘 나타난다. 설문 결과 중국인 관광객들 10명 중 7명이 한우를 먹어본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한우가 중국에 유통될 경우 '구입하겠다'는 의향은 90%에 달했고 한우가 한류의 대표적인 식문화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82% 가까이가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 FMD 청정화를 비롯한 검역 문제 해결이 우선

하지만 한우 수출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바로 질병 청정화, 그리고 수입제한 조치 해제다. 한우갈비를 주 메뉴로 운영하는 한 프랜차이즈 업체의 경우 중국 4개 지역에 진출해 있지만 원료육 반입이 안 돼 '한우갈비'를 수출하려던 원래 의도와 달리 중국의 쇠고기를 쓸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역과 같은 비관세장벽 철폐 문제는 양국 정부당국간의 긴밀한 협조체계 하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만 해결이 가능하다. 한·중 FTA 차이나 데스크 한 관계자는 "미국이나 EU과 달리 중국은 비관세장벽이 높아 이를 낮추려는 노력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으며 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행위원회가 협력하고 있는 만큼 그 시기를 다소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병오 교수는 "현재 일본산 쇠고기에 아무 하자가 없는데도 중국이 수출을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국만 수입을 허가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검역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FTA 이후 양국간 정치적 협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중국산 쇠고기가 우리나라를 위협할 상황도 아니고 우리나라도 당장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홍콩 수출 추이를 지켜봐가면서 중국 수출을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 한우고기 수출에는 검역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1등급 이상의 수출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고 수출길을 열었다 하더라도 FMD가 재발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또한 호주산과 미국산 대비 품질 및 가격 경쟁력도 확보해야 하며 낮은 한우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본의 화우처럼 정책적 지원과 함께 '한우'라는 공동브랜드를 바탕으로 막대한 프로모션을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애로사항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쇠고기 시장이 15년 이내 무관세 시대로 돌입하는 만큼 한우농가들도 장기적 관점에서 수출을 준비해 고급육으로서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추석맞이 한우 장보기, 알뜰주부에 인기

## 22~23일 서울청계광장서 시중가 대비최고 20% 저렴한 직거래장터 열려

추석명절을 앞두고 서울 도심에서 명품 한우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마련된 한우 직거래장터에 알뜰 주부들을 비롯한 수많은 시민들이 몰려 한우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근수)는 지난 9월 22일(화)부터 23일(수)까지 이틀간 서울청계광장에서 '추석맞이 한우 직거래장터'를 열었다.

한우 직거래장터에서는 안심, 등심, 채끝, 양지, 사골 등 다양한 부위의 한우를 시중가보다 20% 이상 저렴한 가격에 판매했으며, 가족 건강에 좋은 사골, 우족 등 한우 부산물도 인기를 얻었다.

장터는 추석을 앞두고 명절 음식 준비를 위해 한우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로 종일 북적였으며, 이미 개장 전부터 한우를 사기 위해 길게 줄을 서기도 했다.

행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됐으며 경북의 '의성 마늘소'와 전북의 '정읍한우' 브랜드가 참여해 산지에서 신선한 한우를 직접 공급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외에도 직거래장터를 방문한 소비자들을 위해 한우 부위별 다트 던지기 이벤트를 진행하였으며, 행사장 옆에는 한우불고기시식회가 마련돼 시민들이 한우고기의 우수한 맛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 “우리 땅에서 자란 한우가 좋아요”

## 한우자조금, 어린이 대상 ‘한우알림순회공연’ 진행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우의 우수성과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며 한우에 대한 호감도를 높이는 한우알림순회공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근수)는 지난 9월 한 달간 수도권 지역의 어린이집 9곳과 롯데백화점 2곳에서 ‘한우알림순회공연’을 진행했다. 이번 공연은 어린이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한우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한우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본격적인 공연에 앞서 마술사 류엘의 보자기와 카드 마술쇼가 아이들의 관심을 끌었으며 본 공연에서는 영양학적 우수성과 친근함을 상징하는 황소 ‘트니트니’, 덩치가 크고 잘 먹는 흑우 ‘야미야미’, 한우의 미용과 노화방지 등의 미적 효능을 상징하는 백우 ‘쁘니쁘니’ 등 한우 세 마리와 미국에서 건너온 수입소 ‘카우카우’가 캐릭터 인형으로 등장해 이야기를 이끌어갔다. 특히 한우를 사랑하는 여섯 살 꼬마 예슬이가 한우에 대한 스토리를 노래와 춤으로 보여줘 어린이들에게 재미를 선사했다.

공연 중간 중간에는 해설자가 아이들에게 한우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잘 먹고 튼튼하게 자라겠다는 약속을 아이들에게 받아내기도 했다. 이어 아이들은 ‘어린 송아지’ 와 ‘한우가 좋아’ 라는 노래를 부르며 함께 춤을 췄고, 공연이 끝난 후에는 한우캐릭터가 그려진 조각 퍼즐 선물을 받고 행복해 했다.

리라어린이집(안양시 동안구 소재)의 이수빈 교사는 “아이들이 신기해 하면서도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자리였다”며 “인형극을 통해 한우와 미국산 소의 차이점을 아이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알려줘서 유익했다”고 말했다. 또한 “질문을 하고 함께 춤을 추는 등 소통하는 인형극이어서 아이들이 더 좋아 했던 것 같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을 위해 많은 공연을 준비주길 바란다”고 관람 소감을 전했다.




제8회 충북 한우사랑 축제







제3회 포천 한우 축제

# "축제에서 한우가 빠질 수 없죠"

## '포천 한우축제', '충북한우사랑 축제' 등 개최

가을을 맞아 지역 곳곳에서 한우도 맛보고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풍성한 한우축제가 열려 화제다.

지난 9월 4일에는 '경기 G브랜드 페스티발&경기한우경진대회', 11일부터 12일까지 '강원 축산경진대회', 11일부터 13일까지 '제3회 포천 한우축제', '제8회 충북한우사랑 축제', '2015문경오미자·약돌한우축제', 15일에는 '경북한우경진대회' 등이 지역별로 개최됐다.

먼저 경기도 포천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3회 포천 한우축제'는 한우산업 활성화를 위한 '한우송아지릴레이 사업'의 일환으로 송아지 기부식이 열렸으며, 지역내 13개 한우농가가 출품한 거세우의 우열을 가려내는 '고급육 경진대회'도 개최돼 방문객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또한 신선한 포천한우를 직접 맛볼 수 있는 시식코너 및 즉석 바비큐 행사장은 방문객에게 가장 많은 인기를 끌었으며, 한우농가와 포천시민이 함께한 '가요사랑콘서트'도 축제의 열기를 더했다.

한편, '제8회 충북한우사랑 축제'가 열린 충북농협물류센터 하나로마트 특설링은 한우농가 및 소비자 등 500여 명과 전국 각지에서 축제를 즐기기 위해 찾아온 방문객으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특히 다양한 한우브랜드 할인행사도 마련돼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한우고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행사를 주관한 한우협회 충북지부 도지회는 단순히 즐기기 위한 축제에서 탈피,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 2,700만원 상당의 한우고기를 충북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 전달했으며, 한우자율식당과 함께 넉넉한 마음을 담은 '한우국밥나눔' 시식행사도 마련해 방문객들에게 감동을 전했다.

# 새빨갛고 맛있는 '한우와 사과' 맛보세요

## '제9회 장수 한우랑사과랑 축제', 35만 명 인파 몰려

'제9회 장수 한우랑사과랑 축제'가 지역주민과 전국에서 모여든 방문객들의 큰 호응 속에 20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장수읍 의암공원과 장수군 일원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레드 컬러(Red Color, 빨간색)' 농축산물을 테마로 다양한 농촌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추석명절을 앞두고 장수사과와 오미자, 한우 등 신선하고 품질 좋은 장수지역의 농축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35만 명의 방문객이 축제장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고급 장수한우를 저렴하게 구매하고 시식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장수한우마당'에서는 1++ 등급 등심을 시중보다 30% 저렴한 가격인 8,900원(100g 기준)에 판매했으며, 한우를 구매하고 맛보려는 인파로 연일 북새통을 이뤘다. 행사 주최 측은 축제기간 동안 38억 원의 농축산물 판매 수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 우리 한우로 만든 불고기 드셔보세요!

## 한국국제축산박람회 참가해 시식 행사 등 홍보전 펼쳐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근수)는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한국국제축산박람회에 참가해 각종 경품행사 및 무료 시식회를 열어 소비자들에게 우리 한우의 우수성과 뛰어난 맛을 알렸다.

실내에 마련된 부스에서는 이번 축산박람회의 주제인 '친환경 안전 축산, 세계로 미래로'에 맞춰 친환경 한우 축사의 모형을 전시했으며, 관람객이 자유로이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한우 모형 포토 존을 만들고 경품행사를 진행했다. 실외에 마련된 시식 부스에서는 한우 농가들이 정성들여 키운 한우 불고기를 무료로 시식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박람회 참관객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 "한우를 민족산업으로 육성하자"

## 전국한우인대회 및 16주년 전국한우협회 창립기념식 개최




'비상하라! 민족산업 한우, 도약하라! 전국한우협회.' 전국의 한우인들이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았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는 지난 9월 7~8일 이틀간 제주도 유채꽃플라자에서 '전국한우인대회 및 한우협회 창립 16주년 기념식' 을 가졌다.

행사는 한우협회제주도지회 김맹종 회장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우수지부와 우수회원에 대한 시상 등이 이어졌다.

전국한우협회 김홍길 회장은 대회사에서 "우리 민족의 자산이자 세계적인 고유 유전자원인 한우를 보존해, 한우산업을 안정화시킴으로써 산업의 품격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민족산업으로 육성하자"고 밝혔다.
이날 한우협회 회원들은 ▲한우산업이 국민과 함께하는 민족산업이 되도록 앞장서고 ▲김영란법 금품수수 대상에서 국내산 농축산물이 제외되도록 노력하며 ▲FTA 대책 마련 및 무역이득공유제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무허가 축사 양성화 조치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농촌의 국회의원 수가 현 상태로 유지되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며 의지를 다졌다.



전국한우협회 김홍길회장

둘째 날인 8일에는 신구범 전 제주지사의 특강과 한우협회 전북도지회, 장흥군지부, 정읍시지부의 우수사례 발표가 있었다.

한편, 한우산업의 미래를 위해 한우인이 노력한다는 뜻으로 '한우천하지대본' 퍼포먼스와 한우농가들이 제주도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모은 성금을 전달하는 '상생희망 모금 전달식'도 함께 진행했다.

# 추석 명절에는 한우가 최고!

## 한우 할인행사 등 정보제공, 선물세트 협찬 진행



### 추석 특집방송 한우 선물세트 협찬 진행

인기 연예인들이 출연한 추석 특집 프로그램(SBS 어머님이 누구니, JTBC 히든싱어, KBS2 아이돌 전국노래자랑, KBS2 네 멋대로 해라)에 한우 선물세트를 협찬하여 추석 선물에는 한우가 최고임을 강조했다.

### 추석맞이 알뜰살뜰 한우 구매법 공개

지난 9월 18일 SBS '생활경제' 프로그램에서는 저렴하게 한우를 구입할 수 있는 정보와 추석 명절에 가족과 함께 즐겨먹을 수 있는 특선 한우 요리법 등을 소개했다. 또한 9월 22일에는 SBS '모닝와이드' 프로그램에서 추석맞이 '한우 직거래장터' 행사 소개와 한우의 우수성을 홍보했다.




### 캠핑족, 캠핑 한우 요리법 노하우 전수



지난 9월 7일 KBS '2TV 아침' 프로그램에서는 도심 속에서 즐기는 이색 캠핑장에서 캠핑 마니아가 추천하는 한우 피자와 한우 요리대회 참가자들의 요리법을 소개했다. 또한 지난 9월 4일 SBS '모닝와이드' 프로그램에서는 '2015 대한민국 축산물 브랜드 페스티벌' 현장의 열기를 전했다.

## 10월 주요 방송프로그램 협찬 계획

- MBC 그린실버 고향이 좋다(10월 19일 11:00) : 지역의 한우 사육방법과 한우 불고기의 우수성 소개
- KBS2 생생정보(10월 중순경 20:30) : 믿고 먹을 수 있는 우리한우판매점 소개
- 푸드TV 필로교수의 쿠킹콘서트 한우예찬(10월 5일부터 매주 월요일 16:00, 3회) : 한우 부위별 요리법 소개

*방송프로그램 편성에 따라 방송 일자는 변동될 수 있음



October

10월

## 주요행사일정

**1일(목)** 양양송이축제(~4일)
거창 녹색곶간축제(~4일)
단양 온달문화축제(~4일)

**2일(금)** 경기고양 고양시국화축제(~4일)
진천문화축제(~3일)
청원 생명축제(~11일)

**3일(토)** 황우쌀축제
평창 노성제행사(~5일)

**4일(일)** 영주풍기인삼축제(~11일)

**7일(수)** 경남시군지부장 연석회의(하동한우협회)
횡성한우축제(~11일)
남양주슬로라이프국제대회(~17일)

**8일(목)** 경북 한우나눔행사(~23일)
경기고양 한우국밥행사
전남광양 광양숯불구이축제(~11일)
홍천한우축제(~11일)
울산처용문화제

**9일(금)** 봉계한우암소불고기축제(~11일)
전남진도 명량대첩제(~11일)

**11일(일)** 외포리새우젓축제
우리축산물퀴즈왕선발대회
(과천시민회관체육관)

**14일(수)** 축사환경 대응을 위한 국회대토론회
(국회의원회관)

**15일(목)** 나주 국제농업박람회(~31일)

**16일(금)** 보은 소싸움대회(~22일)

**22일(목)** 전국한우경진대회(~23일 안성팜랜드)

**23일(금)** 전남, 명품전남한우대축제
(~24일 화순힐링푸드축제장)
전남 함평 '2015대한민국 국향대전'(~25일)

* 위 행사일정은 9월 2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향후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음.



# 10월 이후
# 한우 도매가격 전년 대비 강세 전망

**사육전망**

- 9월 한육우 사육 마릿수 전년 대비 감소 예상

9월 사육 마릿수 전년 동월(282만 마리)보다 감소한 269만 마리 전망

**공급전망**

- 10~11월 쇠고기 공급량 전년보다 감소 전망

사육 마릿수 감소로 10~11월 도축은 전년보다 10~20% 감소 전망
국내 가격 강세로 수입량 전년보다 5~10% 증가 전망

**가격전망**

- 10월 이후 한우 도매가격 전년 대비 강세 전망

한우고기 공급 감소로 10월 한우 1등급 도매가격 전년 동월보다 상승한 16,500~18,500원/kg(지육) 전망



[ 한우 1등급 도매가격 전망 ]

단위: 원/지육kg(만원/600kg)

| 구 분 | 9월 | 10월 | 11월 |
|---|---|---|---|
| 2015년 | 18,751 (674) | 16,500~18,500 (593~665) | 10월 대비 약보합 |
| 2014년 | 15,284(549) | 14,756(530) | 14,388(517) |
| 평 년 | 14,841(533) | 14,220(511) | 13,901(500) |

■ 한우 소비자 가격 급등시 수요 감소 ⇒ 대체수요(수입육) 증가
■ 국내산 쇠고기 가격 강세로 수입육 시장 점유율 확대 예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한육우 사육과 가격 동향 및 전망(9.25)' 인용]

## • 9월 한우가격정보

* 9.22일까지 기준임.
* 전국경락가격: 전국 13개 도매시장 가격(원/지육kg), 결함제외 가격

| 구 분 | | | 평년 ('10~'14) | 2014년 | | 2015년 | | 대비(%) | |
|---|---|---|---|---|---|---|---|---|---|
| | | | | 8月(A) | 9月(B) | 8月(C) | 9月(D) | C/A | D/B |
| 도축두수(두) | | | 827,324 | 109,329 | 43,404 | 67,883 | 90,051 | △37.9 | 107.5 |
| 경매두수(두) | | | 379,185 | 50,730 | 20,788 | 38,165 | 43,296 | △24.8 | 108.3 |
| 도매시장 경락가격 (원/kg) | 평균 | | 13,406 | 14,666 | 15,358 | 18,405 | 18,414 | 25.5 | 19.9 |
| | 거세우 | | 14,569 | 15,544 | 16,007 | 19,210 | 19,386 | 23.6 | 21.1 |
| | 비거세우 | | 10,624 | 11,818 | 11,752 | 14,475 | 14,906 | 22.5 | 26.8 |
| 가축시장 거래가격 (천원/두) | 암소 | | 3,910 | 4,382 | 4,496 | 5,555 | 5,645 | 26.8 | 25.6 |
| | 송아지 | 암 | 1,511 | 1,892 | 1,930 | 2,647 | 2,744 | 39.9 | 42.2 |
| | | 수 | 2,045 | 2,699 | 2,755 | 3,223 | 3,389 | 19.4 | 23.0 |
| 불고기(1등급/kg) | | | 32,690 | 34,420 | 34,565 | 36,450 | 39,185 | 5.9 | 13.4 |
| 등심(1등급/kg) | | | 61,957 | 66,240 | 68,603 | 71,770 | 74,976 | 8.3 | 9.3 |

## • 한우농가 소득 추정(9월 한우거세 도매가격 기준)

| 등급 | 도매가격 (원/kg) | 가격(A) (천원/600kg) | 경영비(B) (천원/600kg) | 소득(A-B) (천원/600kg) |
|---|---|---|---|---|
| 1++ | 21,123 | 7,592 | 4,728 | 2,864 |
| 1+ | 19,738 | 7,094 | | 2,366 |
| 1 | 18,914 | 6,798 | | 2,070 |
| 2 | 17,439 | 6,268 | | 1,540 |
| 3 | 14,237 | 5,117 | | 389 |

* 9.22일까지 기준임.
* 경영비 : 2014년 한우 비육우 경영비(4,728천원/600kg, 통계청)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 해당 기간 조회 기준임]

* 일일 한우가격동향은「한우키우기 어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앱 다운로드방법** 한우키우기 를 play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해보세요. * 아이폰 기종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꼼꼼한 개체 관리로 번식우 평균 6산

## 경북 문경 백상농장

2010년 한우개량사업소 육종농가로 선정된 백상농장은 번식우 평균산차가 6산으로 일반 농가에 비해 매우 높다. 게다가 꼼꼼하고 체계적인 교배계획과 수정으로 연 2회 계절번식을 진행하고 있으며, 야간 분만을 피해 농장주의 체력 소모와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있다. 특히 '홍만이'는 나이가 많고 다산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11산에 성공했다. 올해 93마리의 송아지를 생산한 백상농장의 김경숙 대표를 만나 암소개량 노하우에 대해 들어봤다.

### 다산의 비결, 개체관리 잘 하는 것

백상농장은 연 평균 120마리의 송아지를 생산하고 있으며, 6산을 넘긴 번식우가 상당수를 차지한다. 그 비결에 대해 김경숙 대표는 개체관리를 잘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일반 농가에서는 번식우가 3산을 넘기면 도태를 하지만, 김 대표는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암소를 고정자본재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5~6산차 번식우에서 생산된 개체가 건강하고 등급도 잘 나오는 것 같다고.

김 대표는 강건성을 유지하기 위해 구제역 백신은 기본이며, 아까바네, 송아지설사 혼합백신(바이러스, 대장균) 예방접종을 철저히 하고 있다. 암소의 예방접종은 곧 송아지 건강과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내년 12산을 앞둔 홍만이의 경우 성질이 온순하며 자식을 잘 키워 낼 뿐만 아니라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체구도 튼실하고 건강



김경숙 대표의 손과 발이 되어 열심히 농장을 이끌고 있는 두 아들.



백상농장의 기둥인 홍만이는 내년 12산을 앞두고 있다.

한데, 이 역시 시기별로 예방접종을 잘 맞췄기 때문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 까다로운 조건 충족해 육종농가 선정

백상농장은 지난 2010년 까다롭기로 유명한 '육종농가'에 선정됐다. 육종농가에 선정되려면 농가의 신용은 기본인데다 개량 의지도 중요하며, 요네병, 요결핵, 구제역, 브루셀라 등에 걸리지 않아야 한다. 소가 이런 질병에 걸리면 더 이상 육종농가의 자격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농가에서는 질병 차단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와 함께 교배계획, 수정 및 분만관리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한 조건이 된다.

백상농장 김경숙 대표는 현재 철저한 교배계획 아래 암소에 맞는 보증정모우의 정액으로 수정을 하고 1년에 두 번, 봄과 가을에 계절번식을 하고 있다. 종축개량협회의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직접 수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 암소가 근내지방도와 등심단면적이 약하면 이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수소의 정액으로 보완한다. 김 대표는 "개량 15년 만에 이제 성과물이 서서히 나오는 것 같다"고 말한다.

보통 개량농가는 우수한 정액만을 고집하는 경우가 많지만 암소와 잘 맞지 않으면 원하는 송아지가 태어나기 힘들다. 김 대표는 "농장에 100두의 번식우가 있다면 이 모든 소에 대해 장단점을 모두 파악하고 있어야 교배계획을 세울 때 편리하다"고 말한다. 김 대표는 달력과 PC에 암소의 교배계획부터 수정날짜, 출산일, 송아지 정보에 대한 자료를 빼곡하게 정리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김경숙 대표는 수작업으로 모든 소를 관리하고 있다.

## 일몰시 사료 급여로 야간 분만 피해

백상농장이 다른 농장과 다른 점은 인위적으로 야간 분만을 피해서 농장주가 받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가 사료를 먹으면 체온이 1도 올라가는데 분만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일몰할 때 사료를 급여하면 저녁 12시쯤 소화가 되면서 체온이 떨어지고 새벽 5~6시 정도에는 소가 분만할 준비가 되죠."

김 대표는 번식우가 출산이 가능한 월령이 되면 하루 한 번 사료를 급여하는 대신 볏짚은 무제한 공급하며, 미네랄 블럭으로 광물질을 보충함으로써 암소를 건강하게 하고 신체충실지수(BCS)를 높게 유지하고 있다. 특히 BCS를 2.8~3.0으로 맞추고 있는 것은 어미소와 송아지를 잘 관리하기 위한 김 대표만의 노하우라 할 수 있다.

김 대표는 "240두 규모의 농장일을 돕고 있는 두 아들이 축산대학을 졸업하면 축사 증축을 통해 사육두수를 500두, 1,000두로 서서히 늘려 후계영농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한우 갈빗살을 '만인이 포식'하는 그날까지

## 포항 '만포한우갈비'

넉넉한 가을하늘만큼이나 넉넉한 맛으로 고급 한우 갈비를 맛볼 수 있는 곳이 있다. 경북 포항시 중심지에 위치한 '만포한우갈비'는 한우갈비만을 취급하는 갈비전문점으로 양질의 한우 고기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그 맛을 보기 위해 포항의 '만포한우갈비'를 찾아 나섰다.

우리 한우
한우만 판매합니다!
(사)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 한우 외길인생, 갈비 외길맛집



포항 '만포한우갈비' 박철관 대표 부부

"스무 살이던 1975년부터 지금까지 40년간 한우 외길을 걸어왔어요. 한우 목장은 물론 식육점, 도매업, 식당에 이르기까지 소와 함께한 인생의 경험을 담아 최고의 갈비 맛을 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칠관 대표는 '한 우물만 파자'는 신념으로 여러 부위를 판매하는 다른 식당과 달리 한우갈비 전문점인 '만포한우갈비'를 차렸다. 만포한우갈비의 주 메뉴는 갈비를 이용한 소금구이, 양념구이, 안창살, 소고기찌개, 갈비탕 등이다. 오로지 갈비에 승부를 건 결과 맛으로 정평이 나, 지역주민은 물론 인터넷을 보고 찾아오는 관광객들로 성황을 이룬다.



갈비 본연의 맛을 즐길 수 있는 소금구이



소금구이는 먹을 만큼 만 올려 구워 먹는 것이 제맛



점심메뉴로 인기를 끌고 있는 소고기찌개

## 소금구이로 담백한 맛 즐기고, 달콤한 양념구이로 마무리

만포갈비의 인기 메뉴는 소금구이와 양념구이로, 소금구이는 갈비 본연의 맛을 즐길 수 있는 신선한 갈비가 나오는데 참숯화로에 위에 구우면 고소한 맛이 입안으로 녹아든다. 양념구이는 간장, 참기름 등 18가지 양념으로 만들어진 특제소스를 갈비에 발라 구워 먹는데, 소스의 특이한 맛이 갈비의 맛과 독특한 조화를 이룬다. 보통의 갈빗집과 달리 만포갈비는 양념에 고기를 재지 않고 즉석에서 바르기 때문에 신선한 맛 또한 살아 있어 마니아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빨간 국물에 갈빗살을 담아 끓인 소고기찌개는 얼큰하고 고소한 맛으로 손님들에게 사랑을 받는다. 각종 버섯과 당면을 넣고 한쪽에 갈비를 푸짐하게 담았는데 가격도 저렴해 점심 메뉴로 인기가 많다.
식당 내부 곳곳에는 '우리한우판매점' 포스터와 작년 9월 개최된 우리한우판매점 발표회 사진이 눈에 띈다. 박 대표는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우리한우판매점 인증을 받게 됐는데 홍보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며 "손님들의 반응도 좋고 믿음을 줄 수 있는 근거로도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출 상승에도 영향을 준다"고 전했다.

만포갈비는 메뉴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전문성으로 차별화한 결과 갈비구이 한우 맛집으로 우뚝 섰다. 박 대표는 앞으로도 이름이 가진 뜻 그대로 한우갈비를 '만인이 포식'하는 날까지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가격을 올려 마진을 높일 수 있지만, 저렴한 가격에 많은 고객이 맛볼 수 있다는 보람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이다. 박 대표는 "소의 모든 부위 중 갈빗살이 가장 맛있다고 생각한다"며, "손님들이 이런 제 생각에 공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 포항 만포한우갈비

- 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양학천로 160
- 전화 | 054-272-9366
- 영업시간 | 오전 10시~오후 10시
- 휴일 | 설, 추석
- 메뉴 | 소금구이(100g) 15,000원 , 양념구이(100g) 15,000원, 안창살(100g) 17,000원, 옛날불고기(200g) 12,000원, 육회(300g) 30,000원, 소고기찌개 8,000원, 갈비탕 8,000원






한우농가들이 최근 한우산업 동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9월 한 달 동안 일간지 및 축산전문지에 소개된 한우관련 이슈를 간추려 게재합니다.

## 환절기 한우, 비타민 · 미네랄 급여 필요

일교차가 10℃ 이상 벌어지면 가축은 스트레스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지고 바이러스와 세균 등에 쉽게 감염된다. 류재규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질병방역팀장의 도움을 받아 환절기 한우 관리 요령을 알아본다.

한우는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비타민과 미네랄을 급여해 소화기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한다. 또 정기적인 예방접종과 구충을 실시하고 기온이 떨어지는 밤 시간대에 대비해 바람막이 등 보온시설을 설치한다.

〈농민신문 2015.09.04〉

## 〈기획〉 미경산 한우 브랜드 육성 방안은



미경산 한우가 한우 사육마릿수 조절, 고급육 시장 창출 등에 기여하는 바가 큰 것으로 기대를 모으면서 브랜드 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전북대 진수당에서 열린 '미경산 한우 브랜드 육성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에서는 미경산 한우 사업의 현재와 발전방안이 논의돼 전문가와 농가의 관심이 집중됐다. 이날 유경희 일본 북해도 낙농학원 교수는 '일본의 화우현황과 미경산 브랜드의 생산시스템' 발표를 통해 일본 미경산우 브랜드의 특징과 시사점을 소개했다. 이어 권응기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소장은 '미경산 한우 연구배경 및 발전방안' 발표에서 그간의 주요 연구결과와 미래 연구방향을 전했다.

〈농수축산신문 2015.09.04〉

## 송아지 값 고공행진 …500만원대 등장

송아지 가격이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8일 열린 양평축협 송아지 경매시장에서 가축시장 역사상 최고가의 송아지가 탄생했다. 이날 수송아지 최고 낙찰가격은 495만2천원. 제각이 된 송아지에 붙는 5만원의 인센티브를 포함해 500만2천원에 최종 낙찰된 것이다. 낙찰가격이 500만원을 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물론 그만큼 좋은 송아지였다는 의미도 있지만 최근 송아지 생산량 감소로 인해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현상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다.

〈축산신문 2015.09.11〉

## 한우값 올라도… 농가 "실속 없어"

축산업계에 따르면 추석 명절을 2주 정도 앞두고 한우값이 크게 올라 농가들이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인식과 달리 실제 농가 소득은 큰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9월 11일 평균 경락값을 적용하면 한우 한마리당 농가 수취값은 651만 1748원이 된다. 그러나 이 금액이 농가의 순수익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관계자들은 설명한다. 농가가 600kg짜리 소 한마리를 비육하는 기간 동안 들어간 사료비 · 가축비 · 노동비 등 생산비를 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한우농가들이 600kg짜리 소 한마리를 키워 출하하는 과정에서 입은 손실액은 2011년 116만6000원, 2012년 91만6000원, 2013년 57만3000원, 지난해 29만3000원인 것으로 통계청 조사에서 밝혀진 바 있다.

〈농민신문 2015.09.16〉

## "올 추석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 한우 · 갈비"



소비자들이 가장 받고 싶은 추석 선물은 한우와 갈비인 반면, 가장 주고 싶은 선물은 과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10~11일 20세 이상의 롯데마트 송파점과 하나로클럽 양재점 방문고객 362명에게 가장 받고 싶은 추석 선물을 조사한 결과, 한우 · 갈비 등 정육 세트가 1위(30.1%)였습니다.

지난 2010년 같은 조사에서는 현금 · 상품권이 1위, 정육 세트가 2위를 차지해 5년전보다 한우 · 갈비세트의 선호도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20대와 30대는 각각 받고 싶은 선물 1위가 현금 · 상품권이라고 응답했지만 40대 이상 소비자는 정육 선물을 더 선호했습니다.

〈SBS뉴스 2015.09.17〉

## '한우'선물 가능해지나… 김영란法 선물가액 ↑ 가닥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법)'이 내년 9월 시행을 앞두고 관련 업계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이를 의식한 정치권에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시행령 '손질'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당장 '농 · 축 · 수산물'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아예 제외해 달라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공직사회 부조리 근절을 위한 법률이 애초 취지와는 별개로 과도한 규제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폰서 검사' 등을 막자고 만든 법이 자칫 서민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이성보 권익위 위원장은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농 · 축 · 수산물 예외가 어렵다면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고 묻자, "시행령에 위임한 액수를 높이는 문제를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이데일리 2015.09.18〉

# 원산지위반업소 손해배상 청구소송 위임서

## 10월 31일까지 반드시 보내주세요!

원산지 위반에 대한 처벌이 미흡해 원산지 위반업소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전국한우협회는 행정기관 처벌과 별도로 원산지 위반으로 인한 한우 생산자의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가하고자 소송준비에 착수했다. 소송을 위해서는 한우농가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법률사무소에 위임해야 하지만, 현재 시군별 위임서가 부족해 소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협회는 9만4,025호 대상 농가 중 5만호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소송과 한우산업을 위해 한우농가분들께서는 위임서를 10월 31일까지 협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절취선

- 아 래 -

1. 소송행위 2. 변제의 수령 3. 상소의 제기 4.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화해 5. 소의 취하, 상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및 인낙, 소송탈퇴 6. 손해배상금 범위의 산정 7. 기타 소송에 관한 일체의 권한

2015년 월 일

○ 위임인

| 성명 | 생년월일 | 주 소 | 휴대폰번호 | 서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임인 : 사단법인 전국한우협회

- 주 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6길 9(서초동 제2축산회관 2층)
- 전화번호 : (02)525-1053〈내선109〉

※ 청구권을 위임하고자 하는 농가는 위임서를 작성해 절취선을 따라 오린 뒤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퀴즈 QUIZ

피곤하고 나른하시죠? 잠시 휴식을 취하는 동안 B사진에서 A사진과 다른 곳 두 곳을 찾아주세요.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께는 한우자조금에서 마련한 5만 원상당의 농산물 상품권을 드립니다.







※09월호 정답
모자 색깔 /
인형

※ 애독자퀴즈는
한우자조금 홈페이지
(www.hanwooboard.or.kr)내
애독자퀴즈 코너에
접수해 주시기 바라며,
주소 및 연락처도 반드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월호 퀴즈 당첨자 (휴대폰번호 뒷번호 네자리)

| | | |
|---|---|---|
| 윤익상 2515 | 장창록 4446 | 이종성 1455 |
| 이순임 2456 | 최서영 7015 | 김희영 8433 |

한우자조금 소식지 비매품

2015년 10월호 통권 제120호

**발행일** 2015년 10월 1일 **발행인** 이근수 **발행처**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등록번호** 서초 라11645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리풀 3길 20-1 (서초동) 케피아회관 2층 홍보마케팅부 **전화** 02-522-3608 **팩스** 02-522-4314
**기획·편집** (주)인포아트커뮤니케이션(02-2269-5029) **인쇄** (주)삼진P&C(02-2271-0860)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실린 기사와 사진, 그림 등은 무단으로 복제 전제할 수 없습니다.

# 한우산업은 민족산업입니다

## 한우농가와 온국민이 함께 하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합시다.

### ■ 한우만의 우수성을 대한민국(한민족)의 자랑거리로 가치를 더 높힙시다.

- 한우는 다른 축종과는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 세계 유일의 유전자입니다.
- 맛과 기능은 민족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 5천년 민족의 혼이 담겨져 있습니다.
- 국가가 이미 100대 문화유산으로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 한국 근대화의 초석 역할(우골탑)을 했습니다.

### ■ 대한민국의 자랑거리 "한우"를 민족의 명절로 삼아 온 국민이 즐겨 먹도록 합시다.

**"대한민국이 한우먹는 날"을 만듭니다.**

○주체 : 국민 소비자 + 전후방산업(사료, 식품유통, 유통, 음식점) + 한우농가

- 한우농가 : 대국민 감사와 보답(품격 있는 한우인)
- 후방산업(유통업, 음식업 등) : 할인, 후원, 기부
- 전방산업(사료, 동물약품 등) : 가격인하, 후원, 기부
- 국민, 소비자 : 민족 한우 문화 함양, 어려운 이웃과 함께 먹기

### ■ 2015 "대한민국이 한우먹는 날" 행사 (2015년 11월)

○중앙단위 : 온국민과 함께 민족의 얼이 배인 문화 행사

○지역단위 : 대 소비자 및 각계각층 한우문화 동참

- 농가 : 한우 기부로 대국민 보답과 한우인 품격 전달
- 전후방 산업체 : 할인, 후원, 행사기부금 출연
- 소비자(국민 각계각층) : 한우와 어울림, 무료시식, 나눔

※ 각 도에서 행사 기획 및 실행(한우자조금 지원)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